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6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전남도민의 꿈 ‘의과대학 설립’ 홍보 총장·직원·학생 150명 함께 달린다

■ 목포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반드시 설립하여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150여명이 제47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새봄의 질주를 위해 광주를 찾는 이들은 목포대학교의 20년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직원들의 마라톤 모임인 목포대학교 마라톤 동호회와 학생마라톤 동아리 ‘초승달’(초승달로 승리를 향해 달린다) 회원들이 함께 달린다.

목포대 마라톤동호회는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했다. 마라톤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 결성된 동호회는 전국을 누비며 힘찬 질주를 이어오고 있다.

교직원들에 이어 학생마라톤 동아리 ‘초승달’이 결성되면서 교내에 마라톤 열풍이 불었다.

고석규 목포대학교 총장도 교직원들과 함께 달리면서 마라톤 대회를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장으로 삼고 있다.

목포대 마라톤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철 학생인하처장은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 연습을 하다가 의과대학 홍보 등을 위해서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했

다”며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마라톤을 통해 학교 홍보를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라톤을 시작한 지 5~6년 정도 됐다. 천천히 달리면서 머리를 깨끗이 비울 수 있고, 몸 건강을 채울 수 있는 게 마라톤의 매력이다”며 “새 봄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건강을 위해 달리겠다”고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통해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목포대학교는 1990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대



목포대학교 고석규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학생들이 숙원사업인 의과대학설립을 위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완주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통령이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보건 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개설 및 대학병원 건립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목포대학교는 지역민들의 숙원을 이루 어내기 위한 다짐으로 이번 대회 출전 각오를 다지고 있다.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질주를 앞두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은 “건강한 삶과 의대 유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새 공인구 ‘탱고 12’를 지배하라”

중국 상하이 = 김여울 기자

올 시즌 K리그에는 ‘탱고 12’가 새로운 공인구로 사용된다.

‘탱고 12’는 유로 2012에 사용될 공으로 지난해 12월 유로 2012 본선 최종 조추첨식 때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공인구가 교체되면서 K리그 각 구단은 ‘공 구하기’ 전쟁을 벌였다. 작은 변화도 선수들에게는 민감하게 느껴지는 만큼 빠른

가볍고 변화 심해 적응 어려워

짧은 패스 정확한 슈팅에 유리

광주FC 전지훈련장 20개 확보

적응을 위해 공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벌어진 것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광주 FC는 전지훈련에 앞서 국내에서 20개의 새 공인구를 확보했다.

공인구는 훈련 시간에 선수단이 가장 먼저 챙기는 ‘귀한 몸’이다. 중국 공수과정에서도 많은 손길을 거쳤다. 기압차로 인해 기내에서 공이 터질 수도 있는 만큼 일일이 바람을 빼서 수송을 한 뒤 중국 현지에서 바람을 채워 넣었다.

‘가볍지만 공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 짧은 거리에서 정확한 슈팅이 이뤄질 경우 위협적이다’는게 선수단의 반응이다.

미드필더 이승기는 “지난해 쓰던 공보다 가벼워서 아직 어색하다. 공이 많이 나가지 않아서 긴 패스보다는 짧은 패스에 좋은 것 같다. 정확히 때릴 경우에는 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맞는 공은 예전보다 더 매섭게 날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이 가벼워서 힘이 훨씬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정확성’이 속제가 되고 있다. 또 짧은 패스 위주로 빨리 움직이는 팀에게 유리하고, 골키퍼에게는 무시무시한 공이 될 전망이다.

수문장 박호진은 “공이 가벼워서 흔들리면서 온다. 정확히 오는 것 막아낼 때는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 공을 멀리 차야하는데 잘 나가지도 않는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려운 공이다”고 밝혔다.

새 공인구 적응을 놓고 공격수 김동섭도 비상이 걸렸다. 김동섭은 올림픽 대표팀에 다녀오느라 새 공을 접한 지 1주일도 안됐지만 14일 다시 대표팀에 합류해야 한다.

김동섭은 “처음 차보니까 생소하다. 가볍고 잘 안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약을 못했다”며 “출발할 때 하나 몰래 갖고 가야겠다”고 웃었다. /wool@kwangju.co.kr



K리그 올시즌 공인구로 ‘탱고12’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광주 FC는 전지훈련인 상하이에 20개 훈련공수해와 적응훈련에 돌입했다.

“날씨가 안도와주네...”

100회 훈련 마친 선수단 첫 휴식

상하이 10년 만의 눈발에 한숨

“오늘 날씨가 좋아 할텐데...”

13일 아침식사 시간, 창밖을 내다보던 광주 FC 최만희 감독의 얼굴에 걱정스런 표정이 가득했다.

최 감독은 아침부터 날씨 걱정을 한 이유는 훈련도 연습경기때문도 아니었다. 이날이 전지훈련지에서 마친 선수단 첫 휴식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중국에 전지훈련 캠프를 꾸린 광주는 훈련과 연습 경기의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13일은 동계훈련 100고지를 향해 쉽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주어진 천금 값어치 휴식일.

최 감독은 “오늘은 동계훈련을 시작해서 100회 훈련을 마친 선수단이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느라 선수들 고생 많이 했는데 쉬는 날 마음껏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면서 날씨 걱정을 한 것이다.

중국 문명에서 훈련을 해왔던 광주는 지난 9일 상하이 캠프로 자리를 옮겼다.

한반도를 품고 열린 한파는 상하이에 도 영향을 미치면서 10일에는 현지에서는 10년만에 한번 볼 수 있다는 눈이 내렸다.

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상하이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공력과 연습경기가 열린 12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수중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휴식일에도 상하이 하늘은 흐렸지만 비가 그치고 낮 기온도 오르면서 다행히 선수단의 외출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오전 숙소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이날 오후 버스로 상하이 중심가로 이동해 자유시간을 즐겼다. 의상이 준비되지 않으면서 ‘화려한 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훈련 강행군 일정 때문에 사복을 따로 준비해오지 않았던 선수단은 트레닝복 차림으로 상하이 시내를 누볐다.

올해 처음 프로 유니폼을 입은 수비수 이한샘은 “동계훈련을 시작하면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힘들고 고된 일정 속에 외출이어서 풀밭같은 하루를 보냈다”며 “중국 음식도 맛보고 발마사지도 받고 쇼핑도 하고 오늘 충전한 체력으로 내일부터는 2012시즌을 향해 힘차게 달려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뽀팅, 3M코팅, 모비스뽀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비뒤통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전국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차기 | 스타트버튼

아이나비, 만도네비, 모비스네비 products and prices. Includes navigation systems and car accessories.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products and prices. Includes dashcams, rearview cameras, and antennas.

도난경보기, 이차기, 스타트버튼 products and prices. Includes alarm systems, car starters, and buttons.